

오월어머니집 “李 대통령, 오월정신 순수성 인정”

김형미 관장, ‘특별한 인연’ 소개
경기지사 시절부터 지속적 방문
“계엄에 잘 견뎌줘 고마워” 위로도
“헌법 전문 수록 좋은 결과 있을 것”

“80년 5월, 가진 것이 없어도 시민들과 나눴던 그 공동체 정신을 (이재명 대통령이)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그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김 관장은 오월어머니집 사무국장을 맡았던 지난 2021년 1월 29일, 비공개로 5·18 묘지를 참배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5·18 유가족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오월 어머니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적극 요청했

고, 이에 이 대통령은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에 담긴 진심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이어졌다. 제주항공 참사로 무안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비공개 일정으로 다시 오월어머니집을 찾았다. 계엄 사태로 놀랐을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 재차 방문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도 어머니들이 잘 견뎌주셔서 고맙다. 우리가 80년 계엄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물리칠 것이다”라며 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방명록에는 ‘광주의 빛이 빛의 혁명으로’라는 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지난 5월 14일에는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오월

어머니들과 함께 5·18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담은 노래 ‘5·18 어메’를 배우고 함께 부르며 전달받은 약보를 보고 “노래를 익혀보겠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지속적인 방문에 대해 “오월정신에 대한 순수성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월어머니집은 다른 5월 공법단체들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단체이고, 회원들은 모두 5·18 당시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현장에 있었던 분들로, 오월정신 계승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관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해 왔다”며 “투쟁 현장에 있었던 140명의 회원이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있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새오월어머니집 제공)

광주시 채무 2조 돌파... 특·광역시 채무비율 ‘최고’

최근 5년간 지방채 이자 1195억
의회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
시 “선제적 재정 운용 따른 것”

광주광역시의 지방채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채무비율이다.

9일 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 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채는 지자체가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 조달한 채무를 뜻한다.

광주시의 채무는 2020년 1조 180억원에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시민 1인당 부담액은 147만 7000원에 달한다. 2024년 결산 기준 채무비율은 23.1%로, 서울 (21.5%)·대구 (19%)·부산 (18.8%)보다도 높다.

채무가 불어날수록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5년간 (2020~2024년) 이자만 1195억원을 지출했다.

이 금액은 출산장려금을 1인당 1000만원씩 1만 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

준이고, 저상버스(1대 2억 5000만원 기준) 480대를 도입하는 비용과 맞먹는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역시 크게 낮아졌다. 2025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로,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도도 58.3%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50%대에 진입했다.

이런 흐름은 광주시 주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완공 지연과 자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가 부담할 금액만 7000억원을 넘어섰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 역시 대부분이 아직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어, 공사가 본격화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광주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다음 해, 더 나아가 다음 세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내부거래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정부가 지난 2019년 부채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채무에서 제외하기로 해 2024년 결산기준 광주시 채무는 23.1%가 아닌 18.79%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비율 증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회복지비 부담금, 상무·첨단간 도로 개설,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에 따른 위한 것으로 적극적·선제적 재정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 재정지출에 따른 효율성과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재정운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광주시 예산 총액은 8조 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세출은 7조 6000억원으로 약 48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해당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성현 기자

“전남도 문화예술 예산 불용·정산 지연 반복”

작년 문화융성국 불용액 24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사업 포기
조옥현 “예산편성 단계 점검해야”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 (더불어민주당·목포2)이 전남도 문화융성국에 대한 결산 승인 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정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조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문화융성국 총 불용액은 24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약 77%가 문화예술과에 집중됐다. 특히 ‘생활문화센터 조성’, ‘작은도서관 전환’ 등 지역문화기반시설 사업이 2년 연속 지자체의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며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조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 포기 사태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음을 의미한다”며 “지자체 재정여건, 부지 확보 가능성, 대응투자계획 등을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예산 중 약 5억 2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점을 언급

하며, “지속적으로 정원 충원을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전락했다”며 “꼭 필요해서 편성한 예산이 적시에 쓰이지 못한 것은 국악단 운영에도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예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융성국 소관 보조금 수입 중 2억 5000만원 이상이 과년도 정산 미반환, 이자 미납 등으로 여전히 미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수목비엔날레, 작은영화관, G&J 갤러리 등에서 해마다 정산 지연과 징수 누락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강조하는 수입의 정확성과 회계연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두 차례 이상 정산 지연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타당성부터 정산 회수까지 전 주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며 문화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거듭 촉구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 시내버스 광고

全南日報 와 (주) 가온엔 이 함께합니다.



연간이용객
3백 90만명



차량 인가대수
1,040대



운행노선 101개
급행 6개 | 간선 31개 | 지선 64개



광주버스 1일 왕복 횟수
7~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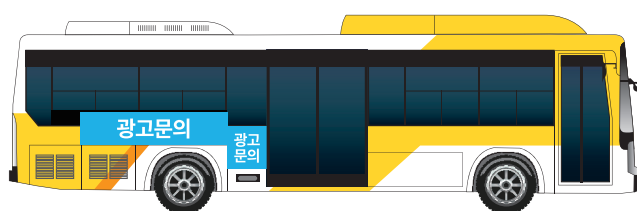
문의
전화

062-366-5002

차도면 대형·중형·저상·좌석버스 (현대/대우)



인도면 대형·중형 (현대/대우)



후면 대형·중형·저상·좌석버스·전기차 (현대/대우)

